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특별히 되새기는 이 시기에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받은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합시다.
- ◆ **예비신자 교리 신청 안내**
 * 신청하실 분은 김정일 그레고리오 형제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당 사무 발런티어 교육**
 - 일시: 오늘 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내 본당 신부 사무실
- ◆ **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
 - 일시: 12월 6일(토) 오후 5시
 - 장소: Holy Family Church (Parish Center)
- ◆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성가단장 박영주 마리아 자매님 (614-315-8598)에게 연락바랍니다.
 (599 E 8th Ave. Columbus)

- ◆ **친교 준비 봉사자**
 - 11월 23일: 성모회
 - 11월 30일: 송 프란체스카
- ◆ **11월 친교 후 정리 봉사:** 정하상 구역
-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시-1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10.00
교 무 금	\$200.00
감 사 헌 금	\$50.00

- **교 무 금:** 이석찬 흥그루
- **감사헌금:** 이소윤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그리스도 왕 대축일 November 23, 2008



<최후 심판>

6세기, 모자이크, 아폴리나레 누오보 성당, 라벤나, 이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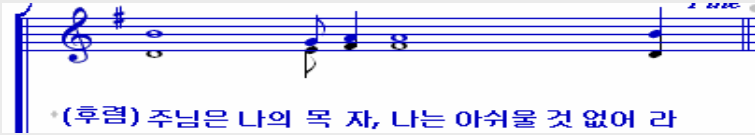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아 그들을 가를 것이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에제키엘서 34,11-12.15-17

“너희 나의 양 떼야, 나 이제 양과 양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화답송



제 2 독서 고린토1서 15,20-26.28

“그리스도께서는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5,31-46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아 그들을 가를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2,635단 19명
이호영	176단 2명	14,389단 84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50단 1명	7,045단 73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학생 구역	단 명	10단 2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226단 3명	2/22/04-11/16/08 (248주)

☞ 총누계: 205,199단 12,698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11월 23일	11월 30일
해설자	신현태	곽광주
독서/봉헌	김효임 구역	정하상 구역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오늘의 성가

♫ 입당: 73 ♫ 봉헌: 214
♫ 성체: 504 506 ♫ 파견: 75

생명의 말씀

사랑과 진리

박성철 미카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냅니다. ‘그리스도 왕’이란 그리스도께서 임금이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임금이신 그리스도는 세속의 권력과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세속의 권력자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빌라도는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

빌라도의 짧은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만신창이 되고 피를 철철 흘리며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불품 없는 인간이 무슨 놈의 왕이란 말인가?”

예수님은 그러나 왕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왕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당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습니다.”(요한 18,37).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17,17). 하느님은 사랑이니까(1 요한 4,8), 사랑의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이렇게 사랑과 진리는 늘 함께 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1 요한 4,7-8).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진리 역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至道無難 지도무난).

주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진리가 드러내는 구체적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해 주듯이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나에게 해 주듯이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다시 풀어 써 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진리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십시오. 사랑과 진리의 꽃에서 피어난 열매가 바로 구원임을 명심하십시오. 사랑은 굶주리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사랑의 왕으로, 진리의 왕으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주님을 닮아 사랑의 왕으로, 진리의 왕으로 한 번 잘 살아보자는 것이 우리네 신앙생활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